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신라현법사(新羅玄法師)에 대한 연구* — 「섭결택분」의 성문지·보살지를 중심으로

백진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dharmapala@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II.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III. 『유가론기』에 나타난 현법사의 위상

IV. 본성상(本性相)·영상상(影像相)에 대한
해석

V. 맺는 말

요약문

본고는 오랫동안 잊혀진 신라 유식제가의 사상을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둔륜의 『유가론기』에 나온 신라현법사(新羅玄法師)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玄’의 구명(具名)은 ‘僧玄’이고, 이 문헌에 총 16회 인용되며, 현장의 문하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대정장』과 『한불전』에 수록된 『유가론기』 및 금릉각 경처본 『유가사지론기』 등 3종의 판본을 대조해봄으로써, ‘현’의 인용회수를 총 19회로 수정하였고, ‘玄’과 ‘僧玄’이 현장의 문하에서 활동했던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또 그에게 『오종성의(五種性義)』 1권의 저서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유가론기』에서 7인의 주요한 유식제가를 인용하는 방식을 분석해본 결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6S1A5A2A03927245)

과, 「섭결택본」의 성문지의 주석에서 현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둔륜이 『유가론』 전문의 주석에서 ‘基·景·泰’를 주축으로 삼고, 그와 동시에 일정한 구간별로 그 3인의 해석을 수정·보완해주는 별도의 학자군으로 ‘備·測·玄·達’을 배치한 듯하다. 둘째, 현사를 제외한 6인이 모두 『유가론』 관련 주석서를 저술하였고, 또 인용된 그의 석문들이 본문을 따라 해석한 것이 많기 때문에, ‘玄’에게도 『유가론』 주석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玄’의 것은 ‘泰’의 것보다 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섭결택본」의 보살지의 주석에서 본성상(本性相)과 영상상(影像相)에 대한 景·泰·備·玄 4인의 주석을 비교해봄으로써 현사의 사상적 면모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현사가 당대의 유가론연구의 제일류 학자들과 견줄만한 독자적 식견과 논리를 갖고 있고, 또 신역경론에 의해 확립된 신(新) 유식설에 상당히 정통한 학자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유가론기(瑜伽論記)』, 현법사(玄法師), 혜경(惠景), 신태(神泰), 문비(文備), 본성상(本性相), 영상상(影像相)

I. 들어가는 말

둔륜(通倫: 道倫?)¹⁾의 『유가론기(瑜伽論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하 『유가론』이라 약칭) 연구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자료다. 이 문헌은 규기(窺基)의 『유가사지론약찬(瑜伽師地論略纂)』(이하 『약찬』이라 약칭)을 근간으로 해서 혜경(惠景), 신태(神泰), 문비(文備) 등과 같은 당대(唐代) 유식제가(唯識諸家)의 학설들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것이라 알

1)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瑜伽論記』의 저자 둔륜(通倫)은 대략 650-710 혹은 720년경에 생존했던 사람이고, 신라 출신의 학자로 추정되었다. 특히 저자 이름과 관련해서 ‘通倫’이라는 설과 ‘道倫’이라는 설이 있다. 예를 들어 근래에 발견된 중국의 금장본(金藏本)에 “海東興輪寺道倫撰”이라고 쓰여 있고, 또 그 간기(刊記)에 ‘道倫이 慈恩大師의 제자였다’고 전한다. 이 금장본에 의하면, 『유가론기』의 저자가 신라 출신이었음을 분명히 듯하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대정신수대장경』 판본에 의거해서 ‘둔륜’이라 칭하였다.

려져 있다. 특히 이 문헌에는 기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未知)의 유식제가들도 많이 인용된다. 일본학계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유끼 레이몽(結城令聞), 도키와 다이쥬(常盤大定),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에다 토시오(江田俊雄), 가츠마타 순교(勝又俊教) 등에 의해 둔륜의 『유가론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저자 둔륜과 더불어 그가 인용했던 미지의 유식제가들의 면모가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²⁾

특히 가츠마타(勝又)는 그의 한 논문에서, 『유가론기』에 인용된 제가의 학설의 인용 빈도수를 전수 조사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또 주요 학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둔륜의 『유가론기』는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종합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던 시기에 저술되었고, 여기에 주로 인용된 유식제가는 주로 『유가론』 연구의 제1기에 활동했던 학자들이다.³⁾ 그런데 저자인 둔륜을 비롯해서, 이 문헌에 인용된 제1기 학자들 중에는 유독 신라(新羅) 출신의 승려들이 많다. 가츠마타의 조사에 따르면, 둔륜이 “新羅○法師”로 표기했던 효(曉: 元曉), 현(玄), 인(因), 증(證), 국(國), 효(鼎: 明鼎), 방(昉: 神昉), 흥(興: 憬興) 등 8인을 비롯해서, 그 밖에 원측(圓測)과 순경(順憬)은 명백하게 신라 출신의 승려이며, 경사(景師), 달사(達師), 범사(範師) 등도 신라 승려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다.⁴⁾

이 신라출신 학자들 중에 원측이나 원효, 경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적과 사상이 알려진 바 없고 그들의 저술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둔륜의 『유가론기』는 기존의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 출신 유식제가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근래에 한국 학계에서는 『유

2) 일본 학계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해서 유끼 레이몽(結城令聞), 도키와 다이쥬(常盤大定),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에다 토시오(江田俊雄), 가츠마타 순교(勝又俊教) 등에 의해 『유가론기』의 저자나 성립시기, 판본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에 다시 198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과 대만과 한국 학계에서 에다 토시오나 가츠마타 순교 등의 연구를 근거로 삼아 『유가론기』의 판본이나 이 문헌에 인용된 유식제가들에 대한 후속적 연구들이 나온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유가론기』 연구 동향은 박인석의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한국사상사학』 제50집, 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5)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3) 勝又俊教, 「瑜伽論記に關する二三の問題」, 『佛教研究』第2卷第4號, 1938, p.129 참조.

4) 勝又俊教, 앞의 논문(1938), pp.132-134 참조.

가론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경사(景師: 惠景)’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도 나왔지만,⁵⁾ 그 밖에 상대적으로 인용 빈도가 적은 학자들은 여전히 미지의 인물들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신라출신 유식제가들의 면모를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신라’라는 국명이 붙은 8인의 학자들 중에 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현법사(玄法師)’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법사’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앞서 언급했던 가즈마타의 논문(1938)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유가론기』에 인용된 모든 유식제가들을 개괄적으로 논한 것이기 때문에 ‘현법사’에 대한 정보는 극히 간략하고 단편적이다. 또 그 연구 결과는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유가론기』에 의거해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된 판본과 대조해보면 수정·보완할 점들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후의 본론에서는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유가론기』, 『한국 불교전서』 제13~14책에 수록된 『유가론기』, 그리고 중국의 금릉각경처에서 나온 『유가사지론기』 등 3종을 참고하여,⁶⁾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해보고 나아가 제한적이거나 주요 인용문의 분석을 통해 현법사의 사상적 면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5) 혜경에 대해서는 박인석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瑜伽論記』에 나오는 경사(景師)의 저술과 사상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瑜伽論記』의 전반부인 「五識身相應地」와 「意地」에 나오는 경사의 주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瑜伽論記』의 구성에 있어 경사의 위상을 조명하였고, 경사의 주석 내용을 분석하여 그가 주로 구역 논서에 의거하여 공부했지만, 신역 경론이 번역되었을 때는 『瑜伽論』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한 명망 높은 학승이었으며, 대소승 아비달마 교학에 정통한 인물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박인석,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혜경(惠景)의 사상경향 분석-「五識身相應地」와 「意地」의 주석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39호, 2014, pp.175-214.

6) 현존하는 『瑜伽論記』의 판본은 크게 두 종류이다. 첫째는 일본의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24권본으로, 1733년에 작성된 일본 승려 성위(性威)의 발문(跋文)이 있다. 둘째는 1934년 중국에서 발견된 『金藏』에 수록된 20권본으로, 1122년에 작성된 이옥(李燾)의 간기(刊記)가 있다. 『宋藏遺珍』과 『磧砂大藏經』에 수록된 『유가론기』는 바로 『금장』의 『유가론기』를 재편한 것으로,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이 판본은 결락된 부분이 있다. 『韓國佛教全書』 13~14책에 수록된 『瑜伽論記』는 『宋藏遺珍』에 실린 『瑜伽論記』를 저본으로 삼아 『유가論』 본문을 회편한 책이다. 중국의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에서 나온 『瑜伽師地論記』는 일본의 『瑜伽論記』를 저본으로 1921년에 초간(初刊)되었다가, 1934년 『金藏』이 발견된 이후 이를 반영하여 교정된 것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인석의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韓國思想史學』 제50輯, 2015, pp. 276-279) 참조.

II.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유가론기』에서 ‘신라현법사(新羅玄法師)’라는 명칭은 「본지분중의지(本地分中意地)와 「섭결택분중성문지(攝決擇分中聲聞地)」에 대한 주석 부분에 각기 1회씩 나오고, 그 밖에 ‘현법사(玄法師)’ 혹은 ‘현사(玄師)’ 등의 명칭으로 10회 이상 등장한다. 여기에 나온 ‘현법사’와 관련해서 일본 학계에서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에다 도시오(江田俊雄)는 그의 한 논문(1934)에서 ‘현법사’란 아마도 보리류지가 장수(長壽) 2년(693)에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보우경(寶雨經)』을 번역했을 때, 또 지과가라가 양경(兩京) 태원사(太原寺) 등에서 『대승현식경(大乘顯識經)』을 번역했을 때, 원측(圓測)과 함께 철문(綴文)에 임했던 사현(思玄)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였다.⁷⁾ 그런데 이러한 에다의 추측은 별다른 근거 없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추측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유가론기』의 번역과 연구를 주도했던 가츠마타(勝又)의 주장이다. 그는 한 논문(1938)에서 『유가론기』에 인용되는 학설들이 누구의 것인지, 각자의 학설의 인용 빈도수는 얼마인지를 전수 조사하여 도표로 정리한 다음, 주요한 학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 가운데 가츠마타는 신라의 현법사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유가론기』에 나오는 ‘新羅玄法師’와 ‘僧玄師’는 동일인이며, 그 경우 승현의 학설은 총 16회 인용된다. 둘째, 승현을 인용한 대목에서 현장 삼장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으므로 그는 현장 문하의 사람이며, 그 밖의 경력이 나 저서 등은 밝혀진 것이 없다.>⁸⁾

가츠마타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유가론기』의 전체 번역을 주도하면서 제가의 학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병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7) 江田俊雄, 「新羅の通論と「論記」所引の唐代諸家」(『宗教研究』新第三號, 昭和9年, p.119) 참조.

8) 가츠마타는 ‘新羅玄法師’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新羅玄法師에 대해서는 16회 인용되고, 그 가운데 2회는 僧玄師라고 되어 있으므로 僧玄이 具名이다. 게다가 ‘僧玄師云三藏不許前義決更作釋言’이라 하고, 또 ‘玄師親承三藏有此傳也’라고 하였으므로, 僧玄은 玄奘 문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그의 閱歷, 著書 등은 不明이다.” 勝又俊教, 「瑜伽論記に関する二三の問題」, 『佛敎研究』第2卷 第4號, 1938年, p.132.

런데 가즈마타의 연구는 『대정신수대장경』에 실린 『유가론기』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본과 비교해볼 때 조금 수정·보완할 점도 있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세 종류 판본을 대조하면서,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또 수정·보완할 점들도 찾아보겠다.

1. 현법사(玄法師)의 구명(具名)과 인용회수

첫째, 가즈마타는 『유가론기』에 나오는 ‘玄’과 ‘僧玄’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근거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불전』의 『유가론기』에 의거해서 현법사와 관련된 명칭을 정리하고, 그것을 『대장장』의 『유가론기』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가론기』에 나타난 玄法師의 호칭

『한불전』	회수	『대장장』	『유가론기』의 해당 과목(인용회수)
①新羅玄法師	2회	=新羅玄法師	「本地分」의 意地(1회), 「攝決擇分」의 聲聞地(1회)
②僧玄師	1회	=僧玄師	「本地分」의 有尋有伺等三地(1회)
③僧玄法師	1회	=僧玄師	「攝決擇分」의 聲聞地(1회)
④玄師	9회	=玄8, 玄師1	「攝決擇分」의 聲聞地(6회), 「攝決擇分」의 菩薩地(3회)
⑤玄法師	1회	=玄	「攝決擇分」의 聲聞地(1회)
⑥玄公	3회	=玄	「攝決擇分」의 聲聞地(3회)
⑦玄云	1회	=云云	「攝決擇分」의 聲聞地(1회),
⑧云云	1회	=云云	「攝決擇分」의 菩薩地(1회), *金陵本 ‘玄云’으로 교감.
	19회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 『한불전』에서 ‘玄’이라 칭한 경우는 『대장장』에서도 ‘玄’이라 칭하였고, ‘僧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① 新羅玄法師, ④ 玄師, ⑤ 玄法師, ⑥ 玄公, ⑦ 玄’ 등과 같이 ‘玄’으로 칭하는 경우와 ‘② 僧玄師, ③ 僧玄法師’와 같이 ‘僧玄’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과 ‘승현’을 동일인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玄’이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섭결택분」의 성문지에 대한 주석 부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⁹⁾ 논문은 이 부분에서 거의 경사(景師)·태사(泰師)·현

사(玄師)의 학설에 의거해서 주석을 달았다.¹⁰⁾ 그 인용 사례를 보면, “景師(또는 『補闕』)云…; 泰師云…; 玄師云…”의 순으로 세 명 모두 인용하거나, 혹은 “景師云…; 泰師云…”; “景師云…; 玄師云…”; “泰師云…; 玄師云…”의 순으로 두 명만 인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한 명만 인용한다. 이 중에 “泰師云…; 僧玄師云…”이라 표기한 사례가 1회 나오는데,¹¹⁾ 전후문맥상 ‘僧玄師’는 또 다른 제3의 인물 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 경사·태사와 대등하게 인용되는 ‘현사’라고 보는 것이 더 일리가 있다. 또 뒤에서 후술하듯, “僧玄師云, 三藏不許前義……”라고 하거나, “玄師親承三藏……”라는 문구들도 ‘僧玄師’와 ‘玄師’가 현장 문하에서 사사했던 어떤 동일인을 가리킨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츠마타는 ‘玄’과 ‘僧玄’을 동일인으로 볼 때 그의 학설이 총 16회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시 검토해본 결과 3회가 더 추가되어 총 19회가 나온다. 그 중 1회는 위의 도표 중의 사례④에서 발견되는데, 해당 문구는 “**玄師** [師]云, 菩提名第一樂, 涅槃名第一趣也.”¹²⁾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한불전』에 ‘玄師云’, 『대정장』에는 ‘玄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가츠마타는 ‘玄云’을 ‘云云’으로 잘못 번역하였기 때문에 인용 회수에서 누락시킨 듯하다.¹³⁾

또 다른 1회는 위의 <표 1> 중의 사례⑦에서 발견되는데, 해당 문구는 “……可知, **玄云云**, 一切法無我諸行無常涅槃寂靜等智, 名爲[爲]無邊際智.”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한불전』에는 ‘玄云’, 『대정장』에는 ‘云云’이라 되어 있다. 이 두 자가 현사의 해석(=玄云)인지 혹은 생략 표시(=云云)인지 판단하려면 이 문장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瑜伽論』「攝決擇分中聲聞地」에 대한 주석은 『瑜伽論記』 권18-19(『大正藏』42, pp.722a25-739c03), 『瑜伽論記』 권16(『韓佛全』14, pp.378-448)에 해당한다.

10) 둔륜은 「섭결택분」의 성문지에 대한 주석에서 대개 본인이 직접 해석하거나 다른 학자를 인용하여 해석한다. 여기서 ‘三藏’을 2회 정도, ‘郭師’를 1회 인용하였지만, 그 외에는 거의 ‘景師(=惠景), 泰師(=神泰), 玄師(=僧玄)’를 인용하였다.

11) 『瑜伽論記』 권18(『大正藏』42, p.0724b02-05)에 “……今云是集, 如何會通. 答: **泰云**, …… **僧玄師云**, ……”라고 하였다.

12) 『瑜伽論記』 권16(『한불전』14, p.418b),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32a8).

13) 勝又俊教 譯, 『瑜伽論記』, 『國譯一切經』論藏部 十二, 昭和40年(1965) 初版(昭和56年(1981) 改訂版), p.1.

“**㉠** 二十二無邊際智及順決擇分，何現觀攝。答。非現觀攝，是等流。”者，**① 補闕二**
[=有多]解。 **㉡ 一解**。 見道前方便中，摠觀無邊際法空及無我，名無邊際智。 **㉢ 第**
二解。 依第四靜[=禪]慮九品次第，從下生中，從中生於上於[-於]上之智，名邊際
 智。 此智其[=具]上，更無加過，名無邊際智。 **㉣** 此智無部分緣，現觀是部分緣，故
 不相攝。 **㉤** 決擇分善根，是八[=入]聖方便，體是修惠，非是思信。 是有漏故，非是
 戒，亦非後三現[-現]觀攝，可知。 **② 玄[=云]云**。 一切法無我諸行無常涅槃寂靜等
 智，名[+爲]無邊際智。¹⁴⁾

위의 인용문은 『유가론』에 나온 어떤 문답(㉠)에 대한 해석이다. 그 논에서
 는 ‘무변제지(無邊際智) 및 순결택분(順決擇分)은 어떤 현관(現觀)에 속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것들은 현관에 속하지 않고 다만 현관의 등류(等流)이다’
 라고 답한다. 이와 관련해서 둔륜은 먼저 경사(景師)의 『보결』에 나온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① 補闕二[=有多]解**’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
 라 ‘**② 玄[=云]云**’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우선, 『대정장』에 따르면, **① 『보결』에 여러 가지 해석[多解]이 나오고, ㉡ 一
 解와 ㉢ 第二解와 ② ‘云云’ 이하에서 각각 “……을 무변제지라고 이른다[名無
 邊際智]”고 한 것은 모두 『보결』에 나온 해석들이다. 그러나 앞의 두 해석은 ‘一
 解’, ‘第二解’로 시작되는 반면, 마지막 해석(②)에는 ‘第三解’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② ‘云云’ 이하는 『보결』의 내용이 아닌 듯하다.**

만약 『한불전』에 따르면, **① 경사의 『보결』에 두 가지 해석[二解]가 나온다.
 먼저, 둔륜은 ① 『보결』의 두 가지 해석(㉡, ㉢)을 인용해서 ‘무변제지’에 대해
 해석하고, ㉣ 그러한 무변제지가 현관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어서
 ㉤ 결택분(決擇分)의 선근(善根)도 사(思)·신(信)·계(戒) 등의 6종류 현관에 포
 섭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까지는 『보결』에 의거해서 본론의 문답
 (㉠)에 대해 총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다음 ② ‘玄云’ 이하에서는 ‘무변제
 지’에 대한 또 다른 제3의 해석을 소개하였다. 특히 둔륜은 ‘섭결택분’ 성문지**

14) 『瑜伽論記』 권16(『韓佛全』14, p.442中),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38b07-17).

에 대한 주석에서 주로 경사·태사·현사의 해석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② ‘云(=玄)云’은 생략 표시(=云云)가 아니라 현사의 해석(=玄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1회는 앞의 <표 1> 중 사례⑧에서 발견되는데, 해당 문구는 “云[=玄]云. 或作加行者. 於乞求者, 應惠財物, 而反押罵故, 云作加行. 又不作加行者……”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한불전』과 『대정장』에 모두 “云云”이라 되어 있지만,¹⁵⁾ 금릉각경처본 『유가사지론기』에 ‘玄云’으로 교감되어 있다.¹⁶⁾ 이것이 생략 표시인지 현사의 해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후 맥락을 검토해보겠다.

①景云. ㉔“此中邪行者謂於是中**或作加行者**者, 作邪加行. ㉕“**或不作加行者**”者, 無邪加行者, 無救濟心. ……②云[=玄]云. ㉖“**或作加行者**”, 於乞求者, 應惠財物而反押罵故, 云作加行. ㉗又“**不作加行者**”, 謂於危厄者, 不作救濟行. ……”¹⁷⁾

위의 인용문은 『유가론』 「섭결택분」의 보살지에 나온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그 논에서는 ‘邪行’에 대해 설명하면서 “㉔ 或作加行故, ㉕ 或不作加行故”라 하였는데,¹⁸⁾ 주석가에 따라 그 두 문구(㉖, ㉗)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문론은 먼저 ① ‘景云’이하에서 두 문구(㉖, ㉗)에 대한 경사의 해석을 인용하였고, 그 다음에 ② ‘云[=玄]云’이하에서 두 문구(㉖, ㉗)에 대한 또 다른 학자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云[=玄]云’은 생략 표시(=云云)가 아니라 현사의 해석(=玄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로 발견한 3회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15) 『瑜伽論記』 권17(『韓佛全』14, p.451下7).

16) 『瑜伽論記』 권17(『韓佛全』4, p.451下7),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0b25).

17)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0b20-c01),

18) 『瑜伽師地論』 권72 「攝決擇分中菩薩地」(T30, 95b29이하)에 “此中邪行者, 謂於是中, 或作加行故, 或不作加行故. ……”라는 문구가 나온다. 위의 『유가론기』 인용문은 그에 대한 주석이다.

〈표 2〉 『유가론』에 나타난 玄法師의 인용회수 19회

『유가론』 100권	인용회수	비고(『대정장』의 출처)
「本地分」의 意地	1회	① 新羅玄法師云(335b20)
「本地分」의 有尋有伺 등 三地	1회	① 僧玄師云(352c18)
「攝決擇分」의 聲聞地 卷67이후	13회	① 新羅玄法師云(723a26) ② 玄云(723c26) ③ 僧玄師云三藏不許前義(724b05) ④ 玄述兩解(725c10) ⑤ 玄云(726c11) ⑥ 玄云(727b11) ⑦ 玄云(728a28) ⑧ 玄云(730b26) ⑨ 玄云(730c9) ⑩ 玄云(730c13) ⑪ 玄云(732a8) → 추가 ⑫ 玄云(735c16) ⑬ 云云(738b15) cf.宋藏遺珍에 ‘玄云’. → 추가
「攝決擇分」의 菩薩地	4회	① 云云(740b25) cf.金陵本에서 ‘玄云’으로 교감 → 추가 ② 玄云(742b16) ③ 玄師述三藏云(744c26) ④ 玄師親承三藏有此傳也(770b9)
計	19회	기존의 16회에서 3회 추가 발견

2. 현장과의 관계 및 저술

둘째로, 가즈마타(勝又)는 현법사(玄法師)가 현장 문하의 사람이고, 그 밖의 경력이나 저서 등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그를 현장 문하의 사람이라고 보는 근거로 두 개의 문구를 들었다. 첫째는 「섭결택분」의 성문지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된 “僧玄師云三藏不許前義決更作釋言.”¹⁹⁾이고, 둘째는 「섭결택분」의 보살지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된 “玄師親承三藏有此傳也.”²⁰⁾이다. 그런데 이 문구들은 현사(=승현사)가 현장을 계승하는 학자라는 점을 나타내기는 해도, 아직 그가 현장 문하에서 직접 사사했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그 문구들의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9) 『瑜伽論記』 권18(『大正藏』42, p.0724b05).

20) 『瑜伽論記』 권20(『大正藏』42, p.0770b09).

먼저, 『한불전』의 『유가론기』와 대조해보면, 첫 번째 문구 “僧玄師云, 三藏不許前義決[-決], 更作釋言, ……”에서 중간에 ‘決’ 자는 잉자(剩字)인 듯하다.²¹⁾ 이에 따르면, 승현사(=현사)가 삼장의 관점에서는 ‘앞의 주장(前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앞의 주장’이란 승현사에 앞서 인용되었던 태사(泰師)의 해석을 가리킨다.²²⁾ ‘태사’는 현장이 『유가사지론』을 번역할 때 역장에 참여해서 상증대의(詳證大義)를 맡았던 신태(神泰)를 가리킨다.²³⁾ 승현사가 직접 삼장의 권위를 빌어 신태의 해석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신태와 마찬가지로 승현사도 현장의 문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은 두 번째 문구 “玄師親承[=聞]三藏, 有此傳也.”이다. 『한불전』에는 ‘承’이 ‘聞’으로 되어 있다.²⁴⁾ 이 문구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문론은 먼저 ① ‘이하는 결택공덕품에 해당한다’는 과판(科判)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와는 조금 다른 ② ‘경사(景師)’의 과판을 소개한 다음, 다시 후자(②)가 아닌 전자(①)를 따르겠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서 “현사가 삼장에게서 직접 듣고서 이렇게 전하였다.”고 하였다.²⁵⁾ 이 『한불전』 판본에 따르면, 현사가 현장에게 직접 사사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가즈마타가 언급했던 이상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문론의 『유가론기』에는 현사와 현장 삼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1회 더 나온다. 그것은 「섭결택분」의 보살지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된 “玄師述三藏言[=云], 從賴耶識中名言種子, 生

21) 『瑜伽論記』 권16(『韓佛全』14, p.387下1-2)에는 ‘決’이 없다.
 22) 『瑜伽論記』 권18(『大正藏』42, p.0724a29-b08)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問. 前第五十一文對法顯揚說, 解脫決擇是道諦. 今云是集如何會通. 答. ① 泰云. 由此等文故知, 大乘義三諦同體, 能感可愛果義邊是集諦. 奘重所隨義邊是苦諦. 能引出無漏聖道邊是道諦. ② 僧玄師云, 三藏不許前義決[-決], 更作釋言, 解脫釋各有二種. ……”
 23) 『瑜伽師地論』 권1「後序」(『大正藏』30, p.283c13-14) 참조.
 24) 『瑜伽論記』 권17(『韓佛全』14, p.536中18-20)에는 ‘承’은 ‘聞’으로 되어 있다.
 25) 『瑜伽論記』 권20(『大正藏』42, p.770b06-09)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① 自下第一[=十一]決擇功德品. ② 若依景師釋, 此下乃至八殊勝來, 猶是決擇是[-是]菩提分法品. 其深密經文全是決擇功德品. ③ 雖有此判, 今還依前判. ④ 玄師親承[=聞]三藏, 有此傳也. ……” 여기서 문론은 ① ‘이하부터는 결택공덕품에 해당한다.’고 하는 과판(科判)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와는 다른 ② ‘경사’의 과판을 소개하고 나서, 다시 ③ 이전의 과판에 의거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로 ④ “현사가 삼장에게 직접 듣고서 이렇게 전하였다.”고 하였다.

本質相, 名爲先分別所生.”²⁶⁾이다. 이 문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둔륜은 경사의 『보궐(補闕)』, 태사의 『장(障)』, 비사(備師), 현사(玄師)의 해석들을 상당히 길게 인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유가론』의 매우 난해한 개념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²⁷⁾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태나 문비 등과 배대해서 현사가 직접 삼장의 권위를 빌어 차별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또한 그가 현장 문하에서 활동하면서 신태나 문비 등과 비견될만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유식학자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가즈마타는 현법사의 이력과 저술 등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영초(永超: 1014-?)가 1094년에 집성한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권1 「잡술록4(雜述錄四)」(T55, 1163a14)에 “五種性義一卷(僧玄師撰)”²⁸⁾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현에게 『오종성의』라는 저술이 있었던 듯하다. ‘오종성’의 문제는 현장이 645년 당(唐)으로 귀국하여 신역 작업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역장에서 매우 치열하게 논쟁되었다. 특히 현장이 신역 『유가사지론』(648년)을 번역하였을 때, 이 논에서 천명된 오종성설의 이치가 ‘일체개성(一切皆成)’의 입장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신(新)·구(舊)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²⁹⁾

이와 관련해서 둔륜은 말하길, “이 논에서 설해진 오종성설을 살펴보면 중성이 결정된 자와 중성이 없는 자는 끝내 성불하지 못한다. 신·구의 논사들이(그에 대해) 입론하거나 논파했던 도리는 생략하고 진술하지 않겠다.”³⁰⁾라고

26)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4c26).

27) 다음 절 <IV. 본성상과 영상상에 대한 해석> 참조.

28) 『東域傳燈目錄』 권1(『大正藏』55, p.1163a14).

29) 현장의 역장에서 벌어진 오종성설에 대한 원전 기록으로는 일본에 천태종을 전한 최징(最澄: 767-822)의 『法華秀句』(『日本大藏經』39)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최징은 현장의 역장에서 중의사문이었던 영윤(靈潤) 법사가 신역 『유가사지론』과 대비되는 구역 경론에 입각하여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을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신태(神泰)가 영윤을 비판하면서 오종성설을 옹호하였고, 백제의 의영(義榮)은 신태의 견해를 다시 비판하기도 하였다. 당 초기에 벌어진 오종성설에 대해서는 박인석의 「道倫의 唯識 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철학사상』 제45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한다. 이에 따르면,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학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듯한데, 어떤 이유에선지 둔륜은 그 논의를 생략하
 였다. 따라서 『유가론기』에서는 승현의 오종성설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이 문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태사(=신태)가 오종성 논쟁의 한 가
 운에서 신역 『유가사지론』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처럼, 승현의 『오종성의』도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III. 『유가론기』에 나타난 현법사의 위상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 둔륜은 현사(玄師)를 총19회 인용하는 가운데 특
 히 「섭결택분(攝決擇分)」의 성문지(聲聞地)의 주석에서만 집중적으로 13회 인
 용하였고, 여기서는 경사(景師)·태사(泰師)와 배대해서 현사를 인용하였다. 그
 런데 그 외에도 「섭결택분」의 보살지(菩薩地)의 전반부 주석에서 경사·태사·
 비사(備師)와 배대해서 현사가 3회 정도 더 인용되었다. 이하에서는 둔륜이
 경·태·비 등과 배대해서 현사를 인용하는 방식을 분석해봄으로써 현법사의
 사상적 면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보려 한다.

경사·태사·비사는 규기(窺基)와 더불어 둔륜의 『유가론기』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쳤던 당대 『유가론』 연구의 제1세대의 학자들로서, 모두 『유가론』 주석
 서를 저술했던 사람들이다. 이 중에, ‘경사’는 『유가론기』 전반에 걸쳐 가장 많
 이 인용되며, 『유가론소(瑜伽論疏)』 20권(=36권?) 및 『보궐(補闕)』을 썼던 혜경
 (惠景)을 가리킨다. 그는 자은 규기에 앞서 먼저 『유가론』 전권에 대한 주석서
 를 썼는데, 당대 유가론 연구의 제1인자로서 규기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사’는 혜경·규기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며, 『유가론』
 의 역장에 참가하여 상증대의(詳證大義)를 맡았고 『유가론소』 10권 및 『유가

30) 『瑜伽論記』 권1(『大正藏』42, p.0324a01). “按此論所明五種, 其決定及無姓, 終不成佛. 新舊諸師, 立破道
 理, 略而不述.”

론겁파라의장(瑜伽論劫波羅義章)』 1권 등을 저술했던 신태(神泰)를 가리킨다. ‘비사’는 「섭결택분」의 보살지의 주석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며, 『유가론』 역장에서 증의(證義)를 맡았고 『유가론소』 13권 등을 저술했던 ‘문비(文備)’를 가리킨다.

『유가론기』에는 가즈마타(1938)의 도표에 거론된 37인을 비롯해서 길장(吉藏), 서방제사(西方諸師), 고한사(古漢師) 등과 같은 호칭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등장한다.³¹⁾ 이들 가운데 규기·혜경·신태·문비가 『유가론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외에 측사(測師)·현사(玄師)·달사(達師)·원사(遠師) 등 네 사람이 특정한 대목의 해석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었다.

이하에서 가즈마타(1938)의 도표 중의 일부를 도시하여, 논문이 그 8명의 학자들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분석해보겠다.

<표 3> 유식제가 8인의 인용빈도

記	1-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고	
論	1-32	33-35	36-37	38-43	44-47	48-50	51-52	53-54	55-56	57-58	59-63	64-69	70-73	74-77	78-81	82-87	88-93	94-100		
1基師	289	98	54	58	55	37	57	79	63	63	45	29	6	3	6	1	2	·		
2景師	243	74	63	76	57	45	57	84	77	84	57	54	66	54	32	43	60	43		
3泰師	123	41	35	36	19	15	26	35	18	35	31	44	52	45	23	27	11	10		
4備師	55	2	4	·	3	3	8	9	6	11	5	1	·	33	33	12	·	2	·	
10測師	4	16	48	70	50	9	2	24	24	1	18	2	·	·	·	·	·	·	1	
13玄師	2	·	·	·	·	·	·	·	·	·	·	·	10	3	3	1	·	·	·	+3
11達師	·	·	·	·	·	·	·	·	·	·	·	·	·	·	1	1	16	43	36	
21遠師	6	5	4	17	6	7	·	·	·	·	·	·	·	1	·	·	·	·	·	

* 『記』 18-19권의 세부적 구간별 차이 : 제18권의 「攝決擇分」의 思所成慧地(論66권)까지 測師가 인용되고, 그 이후 「攝決擇分」의 聲聞地(論67-69권)부터 玄師가 10회 인용된다. 이어서 제19권의 「攝決擇分」의 聲聞地(論70권)까지 玄師가 3회 더 인용되고, 그 이후 「攝決擇分」의 菩薩地(論71-73권)에서 玄師가 초반에 3회, 備師가 총33회 인용된다. *논사의 명칭 앞의 숫자는 가즈마타의 표에 의거하였다.

우선, <표 3>에서 총 인용회수로만 보면, 논문의 『유가론기』 전반에 걸쳐 기사·경사·태사 등 3인이 주축이 되고, 상대적으로 인용회수는 적지만 비사도 두루 인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가론기』 제8권 이후부터는 일정한 구간

31) 가즈마타, 앞의 논문(1938), pp.124-127 참조.

별로 특정한 인용 패턴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측사·현사·달사 등을 구간별로 집중적으로 인용해서 『유가론기』 제8권 이후의 주석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말하자면 『유가론』 「본지분(本地分)」의 보살지(菩薩地)에서 「섭결택분(攝決擇分)」의 사소성혜지(思所成慧地)까지의 주석(=『기』 제8권~제17권)에서 ‘10測師’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섭결택분」의 성문지(聲聞地)의 주석(=『기』 제18권 중반~제19권 중반)에서 ‘13玄師’를 집중 인용하며, 「섭결택분」의 보살지의 주석(=『기』 제19권 중반~제21권)에서 ‘4備師’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섭이문분(攝異門分)」과 「섭사분(攝事分)」의 주석(=『기』 제22권~제24권)에서 ‘11達師’를 집중적으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경·태·비를 제외한 나머지 4인 중에, ‘21遠師’는 규기의 『약찬』에서 9회 정도 직접 거론된 학승으로서, 수대(隋代) 지론종(地論宗)의 학승인 혜원(慧遠 523-592)일 것이라 추정된다.³²⁾ ‘遠師’는 아마도 규기의 『약찬』을 전적으로 참조하는 맥락에서 함께 인용된 인물일 수 있다. 또 가령 “且如舊遠師釋云”³³⁾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遠師’는 당대(唐代) 유식학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사는 일단 논외로 하고, 나머지 3인의 유식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測師’는 신(新)·구(舊) 유식을 섭렵했던 서명사(西明寺) 원측(圓測)이다.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에 의하면, 지금은 일실되었지만 그에게도 『유가론소』(권수 미상)가 있었다고 한다.³⁴⁾ ‘11達師’는 『동역전등목록』에 나온 『유가론소』 10권의 저자 혜달(惠達)이거나 혹은 『유가론요간(瑜伽論料簡)』 1권의 저자 행달(行達)이라 추정된다.³⁵⁾ ‘13玄師’는 앞의 절에서 언급했듯, 현장 문하의

32) 가즈마타, 앞의 논문(1938), p.134 참조.

33) 窺基의 『瑜伽師地論略纂』 권11(『大正藏』43, p.145a21), 通倫의 『瑜伽論記』 권10(『大正藏』42, p.532b24).

34) 『韓國佛教撰述文獻目錄』(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p.13)의 ‘圓測’ 찬술 목록에 “19. 瑜伽論疏 卷數未詳失”이라 하였다. 이것의 전거가 된 것은 『佛典疏鈔目錄』上(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15)이다.

35) 에다 도시오(江田俊雄)는 ‘達師’는 『瑜伽論料簡』의 저자 ‘行達’일 것이라 추정한다. 그 이유로는 신라출신 학자들에게 유독 ‘요간’이란 명칭의 문헌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가즈마타 순교(勝又俊教)는 『瑜伽論疏』 10권의 저자 ‘惠達’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달사의 인용회수(97회)로 보아 『유가론』의 주석서를 쓴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박인석,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韓國思想史學』 第50輯, 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5, pp.261-265) 참조.

사람으로서 『오종성의(五種性義)』1권의 저자인 승현(僧玄)과 동일인이라 추정된다.

이제부터 ‘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인의 유식제가와의 관계에서 ‘현사’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의 <표3>에서 총 인용회수로만 보면, ‘현사’는 측사·달사 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게 인용되고, 그래서 『유가론기』 안에서 그 위상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별(卷別)의 인용 방식에 주목해보면,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나고 그에 의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논문은 기사·경사·태사·비사는 물론이고 적어도 당대의 『유가론』 연구에서만큼은 측사·현사·달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듯하다. 말하자면 논문이 당대 유식제가의 학설을 종합·정리하여 『유가론기』로 집대성할 때, 『유가론』 전문의 주석에서 ‘기·경·태’를 주축으로 삼았고, 그와 동시에 일정한 구간 별로 그들의 해석을 보완하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학자군으로 ‘비·측·현·달’을 배치한 듯하다. 또는 달리 분석하면, ‘기·경·태·비’가 주축을 이루고 ‘측·현·달’은 보조하는 학자군이라 볼 수도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가령 앞 절에서 논했던 ‘무변제지와 순결택분’에 대한 경사·현사의 해석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³⁶⁾ 논문은 경사를 인용해서 『유가론』의 어떤 문단을 총괄적으로 해석한 뒤, 현사를 인용해서 그 중 특정한 문구에 대한 차별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혹은 현사를 인용해서 직전에 인용된 태사의 해석을 비판했던 것도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다.³⁷⁾

둘째, 논문이 당대의 유가론연구에서 주요한 학자들로 간주했던 유식제자들은 대부분 『유가론』 주석서를 저술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현사’에게도 『유가론』 관련 저술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다만 주석서의 형태를 보면, 혜경의 『유가론소』20(혹은 36권)처럼 전권(全卷)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 규기의 『약찬』16권처럼 논의 일부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³⁸⁾ 혹은 신태의 『겁파라

36) 앞의 절 <II-1. 현법사(玄法師)의 구명(具名)과 인용회수>에서 <표 1>의 사례⑦에 대한 분석 참조.

37) 앞의 절 <II-2. 현장과의 관계 및 저술>에서 “僧玄師云三藏不許前義”라는 문구의 분석 참조.

38) 혜경의 『유가론소』20권(혹은 36권)과 신태의 『유가론소』10권과 문비의 『유가론소』13권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혜경의 경우 『유가론기』 전반에 걸쳐 1260회 이상 압도적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의장』1권처럼 논의 특정 주제에 국한된 주석서도 있다.³⁹⁾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가론기』에 인용된 7인의 유식제가들이 『유가론』의 본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사례들이 많고 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사에게 전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섭결택분」의 성문지와 같은 일부분 혹은 이 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주석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⁰⁾ 그 경우, 현사가 삼장의 말을 빌어 태사(=신태)의 견해를 비판하는 대목에 비추어볼 때, 그의 주석서는 신태의 것보다 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IV. 본성상(本性相)·영상상(影像相)에 대한 해석

이 절에서는 당대(唐代) 유식제가와와의 관계에서 현사(玄師)의 사상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분석해보겠다. 논문은 「섭결택분」의 성문지의 주석에서 경사(景師)·태사(泰師)와 배대해서 현사를 집중적 인용하였고, 이후의 보살지의 주석에서 경사·태사와 배대해서 비사(備師)의 인용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섭결택분」 보살지의 주석 초반부에도 경·태·비와 함께 현사가 3회 더 인용된다.⁴¹⁾ 여기서 4인의 유식학자들의 사상적 면모를 동시에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인용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하의 경·태·비·현의 해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유가론』 제72권 「섭결택분」의 보살지에는, 다섯 번의 문답을 통해 상(相)·명(名)·분별(分別)·진여(眞如)·정지(正智) 등의 5사(五事)에

그의 『유가론소』20권이 『유가론』 전권에 대한 주석서라고 추정된다. 또 현존하는 규기의 『瑜伽師地論略纂』16권은 『瑜伽師地論』 제66권, 즉 「攝決擇分中思所成慧地」까지의 주석에 해당한다.

- 39) 의천(義天)의 총록에 열거된 『유가론』 주석서 목록 중에 “劫彼羅義章(神泰述)”이 나오는데, 이는 ‘겁(劫)’이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주석서인 듯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大正藏』55, p.1176b02이하) 참조.
- 40) 가령 의천의 총록에 열거된 『유가론』 주석서 목록 중에 “戒地品義記三卷 志隱述”이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유가론』 「本地分中菩薩地」 제39권~42권까지 이어지는 戒品에 대한 주석서인 듯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大正藏』55, p.1176b02이하) 참조.
- 41) 이상은 이전의 <표 3> 참조.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유가론』의 본문이 상당히 길고, 그에 대한 『유가론기』의 주석도 매우 상세하고 길다.⁴²⁾ 문론은 경사와 태사를 인용해서 해당 본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한 다음, 다시 비사와 현사를 인용해서 그 중의 특정 문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보충하였다. 현사의 해석은 특히 5사 중의 ‘상(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본성상(本性相)과 영상상(影像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론기』에서 그에 대한 4인의 해석들만 발췌해서 비교해보겠다.

우선, 주석의 대상이 되는 『유가론』 원문은 “復有餘二相，一本性相，二影像相。①云何本性相。㉞謂先分別所生，㉟及相所生，㊱共所成相。②云何影像相。㉞謂遍計所起，㉟勝解所現，㊱非住本性相。”⁴³⁾이다. 이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두 문장(①,②)의 구조는 동일하다. 즉, 본성상(영상상)은 ㉞와 ㉟를 말하고, 그것은 ㊱라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본성상’에 대해 “분별에 앞서 생겨난 것[先分別所生] 그리고 상에 의해 생겨난 것[相所生]으로서, 공동으로 이루는 상[共所成相]이다.”라고 하였다. ‘영상상’에 대해 “변계에 의해 일어난 것[遍計所起], 승해에 의해 현현된 것[勝解所現]으로서, 본성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정의 자체가 매우 난해하고, 그에 대한 4인의 해석도 각기 다르다.

첫 번째, 경사(景師)의 『보궐(補闕)』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補闕』云;……①-㉞“云何本性相謂先分別所生”者，本識相分根塵，由先遍計所執，業煩惱熏習種生。㉟“及相所生”者，長養根塵，由四大相所生，及前後並是名相所生。㊱“共所成”者，衆人同許，名共相所成。②“云何影像相”乃至“非住本性相”者，六識隨心影像相也。⁴⁴⁾

경사에 따르면, ①본성상 중에서 ㉞“분별에 앞서 생겨난 것[先分別所生]”이

42) 오사(五事)에 대한 문답은 『瑜伽師地論』 권72「攝決擇分中菩薩地」(『大正藏』30, p.697a13-b23), 그에 대한 4인의 해석은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p.744a14-745a04)에 나온다.

43) 『瑜伽師地論』 권72(『大正藏』42, p.697b08).

44)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4a29-b05).

란, 본식(本識:=아뢰야식)의 인식대상[相分]인 근(根)·진(塵)을 말하니, 이는 ‘변계소집에 앞서[先遍計所執]’ 업변뇌의 혼습종자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㉔ “그리고 상에 의해 생긴 것[及相所生]”이란, 장양(長養)된 근·진을 말하니, 이는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四大: 지·수·화·풍]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㉕ “공동으로 이루는 상[共所成相]”이란, 그러한 근·진은 여러 사람들[衆人]이 공동으로 받아들이는 상임을 뜻한다.⁴⁵⁾

② 영상상에 대해서는 간략히 “六識隨心”이라고만 하였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㉖ 遍計所起”와 “㉗ 勝解所現”에 대해 ‘六識’과 ‘隨心’이라 풀이한 듯하다. 말하자면, “변계에 의해 일어난 것”이란 오식과 제6의식에 현현된 상이고, “승해에 의해 현현된 것”이란 마음을 따라 전전하는 상이다.

경사의 해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는 ①-㉗ ‘先分別所生’에서 ‘分別’을 ‘遍計所執’으로, ㉕ ‘及相所生’에서 ‘相’을 ‘四大相’으로 보았다. 따라서 ㉖ ‘변계소집에 앞서’ 본식(=아뢰야식)의 업종자에서 생겨난 이숙(異熟)의 근·진, 그리고 ㉕ ‘사대의 상’으로 말미암아 장양(長養)된 근·진으로 풀이하였다. 또 본식에 의해 현현된 근·진의 상을 본성상이라 한다면, 6식(=오식과 의식) 등에 의해 현현된 상을 영상상이라 한다.

두 번째로, 태사(泰師)의 『겁파라의장(劫彼羅義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章』云;……“復有餘二相一本性相二影像相”等者, ①-㉗言“先分別所生”者, 先見分熏習. ㉕“及相所生”者, 先相分熏習. ㉖由二熏不相離故, 說共生相分, 名共成相. 理實而言, 相分種子, 自生相分, 見分種子, 自生見分. 此相從本識心起, 常相續, 名本性. ②依本性相, ㉗六七識遍計不[=]所起, ㉕及六七勝外[=]解所現, 隨心故起滅, 不常不相續, ㉖非是本性相, 影像似本性, 名影像相也.⁴⁶⁾

45) 예컨대 과거 생애 서로 유사한 업을 지음으로 인해 공상종자(共相種子)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공상종자가 아뢰야식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서로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근(根)·진(塵)의 경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근·진의 상은 ‘공동으로 이루는 상’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46)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4c08-15).

태사에 따르면 ① 본성상 중에서 ㉑ “분별에 앞서 생겨난 것”이란 ‘견분에 앞선[先見分]’ 혼습(중자)이고, ㉒ “그리고 상에 의해 생겨난 것”이란 ‘상분에 앞선[先相分]’ 혼습(중자)이다. 즉, 견분과 상분이 현행하기 이전에 본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의 혼습중자를 말한다. ㉓ 두 가지 혼습(중자)는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분(相分)을 생하는데, 그 상을 일컬어 “공동으로 이루는 상”이라 한다. 여기서 태사는 설명을 덧붙이길, 비록 두 가지 중자가 공동으로 상분을 내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상분 중자에서 상분이 생하고, 견분중자에서 견분이 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상분이 본식(本識: 아뢰야식)에서 생기하여 항상 상속하는 것을 일컬어 ‘본성상’이라 한다.

② 본성상에 의지해서 영상상이 현현하는데, ㉔ 제6식·제7식의 변계에 의해 일으켜진 상을 일컬어 “변계에 의해 일어난 것[遍計所起]”이라 하고, ㉕ 제6식·제7식의 승해에 의해 현현된 상을 일컬어 “승해에 의해 현현된 것[勝解所現]”이라 하였다.

태사의 해석을 경사의 해석과 비교해보면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태사는 ① “先分別所生及相所生”에서 ‘先’은 앞뒤의 단어에 통하고, ‘分別’은 ‘見分’이고 ‘相’은 ‘相分’이라 보았다. 따라서 그 문구를 ㉑ ‘견분에 앞선[先見分]’ 혼습중자, 그리고 ㉒ ‘상분에 앞선[先相分]’ 혼습중자라고 풀이하였다. 즉 본식(=아뢰야식)에 잠재된 두 가지 혼습중자가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생한 상분(相分)이 본성상이라면, 그에 의지해서 제6식·제7식이 일으킨 상들은 영상상이다.

세 번째로, 비사(備師)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備師, ②“云何影像相謂遍計所起”等者。即依此文, 西國二解。㉖初釋云, 既說遍計所起, 故知一切起影像者, 皆是法執。若作此解, 法執通七識及三性。未論二乘無漏及以本識之[+相]也。㉗第二釋云, 論主文詞, 兩例不同。若言遍計者, 即是分別異名。故下文云, 若分別, 若思惟, 若遍計, 乃至如是等分別差別。若言遍計所執者, 即是法執。以相遍計處, 執法有體故。今此文意, 通辨變影, 非論法執。故云遍計, 不云所執。若依此解, 即當佛地論如實之義。⁴⁷⁾

지금까지 논문은 본성상·영상상에 대한 경사·태사의 해석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논의에서 깊이 재고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비사의 해석을 통해 보완하였다. 가령 ㉔ 영상상 중에 “㉔ 遍計所起”라고 한 것에서 ‘遍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방의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 ㉕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변계소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영상상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 법집(法執)에 해당한다. ㉖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변계’란 ‘분별(分別)’의 다른 이름이고, ‘변계소집’이라고 했을 때만 ‘법집’을 가리킨다. 그런데 논의 문장은 법집을 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계’라고만 하고 ‘소집’이라 하지 않았다. 비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할 뿐 별도로 시비를 판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현사(玄師)는 삼장의 뜻을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玄師述三藏云, ①-㉔ 從賴耶識中名言種子, 生本質相, 名為先分別所生. ㉕ 於眼識等上顯現影像相, 從本性現故, 言及相所生. 此二種相與尋求意識上顯現影像相, 作本故云本性相. ㉖ 此名本性相者, 衆人共許故, 云共所成相. ② “影像相者 謂遍計所起勝解所現非住本性相”者, 此約尋求意識上顯現影像相為論.⁴⁸⁾

현사에 따르면 ① 본성상 중에, ㉔ 아뢰야식의 명언종자(名言種子)로부터 생겨난 본질상(本質相)을 일컬어 “분별에 앞서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또 ㉕ 안식(眼識) 등의 오식에 현현한 영상상(影像相)은 본성상으로부터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아뢰야식과 오식에 의해 생기한 상들은 ‘심구의식(尋求意識)에 현현되는 영상상’에 대해 본(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종류 상(=아뢰야식과 오식의 상)을 모두 본성상이라 한다. ㉖ 이러한 본성상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루는 상”이라 하였다.

47)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744c17-26).

48) 『瑜伽論記』 권19(『大正藏』42, pp.744c26-745a04).

② 영상상에 대해서는 간략히 “심구의식에 현현한 영상상에 의거해서 논한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이러한 현사의 해석은 이전의 경사·태사의 해석과 비교하면 다시 차이점이 드러난다. ‘본성상’의 기원에 대해, 경사가 아뢰야식의 업종자라고 하고, 태사는 견분·상분의 혼습종자라고 했다면, 이들과 달리 현사는 아뢰야식의 명언종자라고 해석하였다. 또 ‘영상상’에 대해, 경사나 태사가 육식(六識) 혹은 제6식·제7식에 의해 현현된 영상이라 한 것에 대해, 현사는 ‘심구의식에 현현된 영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단서들에 주목해서 현사의 사상적 면모에 대해 추측해보려 한다.

첫 번째, 현사가 본성상을 논하면서 ‘아뢰야식의 명언종자’로부터 생겨난 상이라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비해보면, 경사는 ‘아뢰야식(=본식)의 업종자(=업번뇌혼습종자)’로부터 생겨난 상분(相分; 根·塵)이라 하였고, 태사는 ‘아뢰야식에 잠재된 견분·상분의 혼습종자’가 공동으로 생한 상분이라 하였다. 이러한 현사의 주장은 『성유식론』의 학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 논에 따르면, 이전 생이 다하고 다음 생이 이어지는 순간에는 업습기(業習氣=업종자)와 이취습기(二取習氣)의 상호 협력[相助]에 의해 다음 생이 산출된다고 한다.⁴⁹⁾ 물론 다음 ‘생(生)’이라는 과보는 이전 생에서 지었던 모든 업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다음 생을 초감하는 수승한 힘은 업습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연설(四緣說)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이라는 과보를 ‘직접 발생시킨 원인’은 업습기가 아니다. 업습기는 새로운 과보를 산출하는 데 있어 보조적 연(增上緣)이고, 자기의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因緣)은 ‘이취습기’라고 간주된다. 말하자면 곧바로 결과를 내는 지위(生果位)에서는 직전의 원인이 직후의 등질적인 결과를 ‘직접’ 산출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⁵⁰⁾ 이취

49) 『成唯識論』 권8(『大正藏』31, p. 43a10)에 “모든 업습기와 이취습기가 갖추어짐에 따라, 이전의 이숙이 이미 다하고 다시 또 다른 이숙이 생겨난다.[由諸業習氣, 二取習氣俱, 前異熟既盡, 復生餘異熟.]”고 하였다. 이 계승은 이전 생이 다하고 다음 생이 산출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 논에서는 업습기와 이취습기가 모두 갖추어지면 그것들의 상호 협력[相助]에 의해 이전 생의 이숙과(異熟果)가 끝나고 다시 다음 생의 이숙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업습기란 업종자를 말한다. 이취습기란 등류습기(等流習氣)라고도 하며, 이것은 명언혼습종자(名言熏習種子)를 가리킨다.

습기란 자기와 등질적인 과[等流果]를 낸다는 의미에서 ‘등류습기(等流習氣)’라고도 하며, 곧 명언熏습종자(名言熏習種子)를 가리킨다.⁵¹⁾

아마도 태사와 현사는 둘 다 이러한 『성유식론』의 논의를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이취습기’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것을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는[二取] 대표적 사례가 견분·상분의 이분(二分)이기 때문에, 태사는 ‘이취습기’를 ‘견분·상분의熏습종자’라고 해석한 듯하다. 이와는 달리, 현사는 그것을 ‘명언종자’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규기의 『성유식론술기』에 따르면, ‘이취’란 단지 견·상의 이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분법적 구도를 포괄하는 말이며, ‘이취습기’란 다양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熏습되어 생겨난 것[所生]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다시 발생시키는[能生], 아뢰야식에 내재된 특수한 공능을 가리킨다.⁵²⁾ 그것은 바로 자기 과를 직접 발생시키는[親生自果] 공능, 즉 명언종자를 가리킨다.⁵³⁾ 현사는 아마도 그 점을 더 분명하

50) 이전의 종자가 이후의 과보를 산출할 때, 자기와 등질적인 결과[等流果]를 산출하는 인과관계는 전후 잘나에 성립한다. 이처럼 전후 잘나에 인과가 등질적으로 이어질 때 동류인(同類因)·동류과(等流果)의 관계가 성립한다. ‘명언종자’는 동류인이고, 산출된 결과에 대한 직접적 원인[因緣]이다. 반면, 업종자와 그 결과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또 업종자는 선·악의 성질을 띠지만 그 이숙의 과보[異熟果]는 무기(無記)의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선·악의 인이 달리 무르익어 미래에 무기의 과로 나타날 때 이숙인(異熟因)·이숙과(異熟果)의 관계가 성립한다. ‘업종자’는 이숙인이고, 산출된 결과에 대한 보조적 연[增上緣]이다.

51) 『成唯識論述記』 권2(『大正藏』43, p.298c16 이하)의 ‘등류습기(等流習氣)’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같은 책 권8(『大正藏』43, p.515c24 이하)의 ‘이취습기(二取習氣)’에 대한 설명 참조.

52) 규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취(二取, grāhadvaya)’는 모든 현상적 존재들을 포괄하는 두 개의 상대적 범주들을 가리킨다. 이취는 여러 차원에서 가설해볼 수 있다. 첫째, 식체 상에 나타난 상분(相分)과 견분(見分)이다. 둘째, 모든 존재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으로 분류했을 때 색은과 그 밖의 온들을 각기 ‘색(色)과 명(名)’이라는 이취에 귀속될 수 있다. 셋째는 유식의 관점에서 모든 온은 마음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심(心)과 심소(心所)라는 이취에 귀속될 수 있다. 넷째는 현행한 과보들에서 본말(本末)의 이취를 나누면, 제8식은 모든 이숙의 근본이므로 ‘본’이고 그로부터 나온 나머지 식들은 ‘말’이다. 이와 같은 상분·견분, 명·색, 심·심소, 본·말 등과 같이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하고 그러한 이분법적 사유가 아뢰야식을熏습하여 생겨난[所生] 결과이면서 동시에 다시 또 다른 이분법적 사유를 다 발생시키는[能生] 원인이 되는 것, 즉 ‘아뢰야식에 내재된 공능[本識上功能]’을 ‘이취습기’라고 한다. 『成唯識論述記』 권8(『대정장』43, p.515c5-515c23) 참조.

53) 『成唯識論』 권2(『大正藏』31, p.8a05)에서는 아뢰야식의 종자를 정의하면서 “본식 안에 자기의 과를 직접 산출하는 특수한 공능[本識中親生自果功能差別]”이라 한다. 이처럼 자기 과를 직접 내는 공능을 명언종자(名言種子)라고 한다. 그런데 각자의 식(識)에 제법(諸法: 果)이 현현하는 데 있어,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보조적 연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에 따르면, 제법이 생할 때 직접적 원인[因緣] 노릇을 하는 것은 ‘명언(熏습)종자’이고, 업종자는 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 보조적 역할[增上緣]을 한다. 말하자면 팔식(八識)은 선업(先業)의 종자를 연(緣)으로 삼고 명언종자를 인(因)으

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에 따를 때, 앞의 논사들에 비하면 현사가 신역 경론의 ‘종자’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사의 해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본성상·영상상을 본질(本質)·영상(影像)과 연관시켜 논하면서 그 둘을 가르는 기준으로 ‘심구의식(尋求意識)’을 언급한 점이다. 『성유식론』 등에서는 8식(識)의 상분(相分)을 본질상분과 영상상분으로 구분하는데, 그러한 사유의 맹아가 『유가론』의 본성상·영상상에서 발견된다. 현사에 따르면, 아뢰야식(阿賴耶識)이 본질상을 변현해내고, 오식(五識)은 그 본질에 의지해서 자기의 영상상을 변현해낸다. 다시 ‘심구의식’은 앞의 두 종류 상들을 본질의 경계로 삼아 자기의 영상상을 변현해낸다. 이 중에 아뢰야식과 오식에 현현된 상들은 모두 ‘본성상’이고, 이것은 의식에 현현되는 영상상의 본질에 해당한다. 현사가 아뢰야식과 오식의 상을 모두 본성상으로 간주한 것은, 아마도 그 두 종류 식은 경계를 직접 지각(現量)하는 식이고, 반면에 의식(意識)은 언어적 분별에 해당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현사의 해석이 『성유식론』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⁵⁴⁾ 그가 인식 대상에 관한 특수한 학설들과 연관지어 『유가론』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 특히 현사는 본성상과 영상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의식(意識)’이라 하지 않고 ‘심구의식’이라 특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오심설(五心說)이 깔려 있다.⁵⁵⁾ 그 학설에 따르면, 가령 안식(眼識) 등이 ‘돌연히 경계와 마주치는 순간[率爾墮境]’을 일컬어 솔이타심(率爾墮心:=솔이심)이라 하는데, 이때는 아직 경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

로 삼아서 자기의 경계들을 변현해낸다. 이에 관해서는 『成唯識論述記』 권3(『大正藏』43, p.326b10-13) 등 참조.

54) 『成唯識論』에서 본질(本質)·영상(影像)의 구분은 소소연(疎所緣)·친소연(親所緣)의 개념과 직결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상의 영상이기 때문에 ‘친소연’이라 하고, 그러한 영상의 근거가 되는 본질의 경계는 그 자체로 직접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소연’이라 한다. 가령 우리의 일상적 오식(五識)은 제8아뢰야식이 전변해낸 본질(本質)의 경계에 의지해서 영상을 변현해내어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덟 종류의 식마다 각기 본질과 영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권7(『大正藏』31, p. 40c14) 참조.

55) 오심설(五心說)은 마음이 발생하는 차례를 솔이심(率爾心)·심구심(尋求心)·결정심(決定心)·염정심(染淨心)·등류심(等流心) 등 다섯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욕(欲)심소’가 없다. 솔이심 직후에 그 경계를 알고자 심구하는 마음[尋求心]이 일어난다. 『유가론』 제1권에서는 두 번째 심구심은 반드시 의식(意識)에서 일어난다고 하고,⁵⁶⁾ 또 제3권에서는 ‘의식’이라 해도 ‘돌연히 경계와 마주치는 순간’에는 솔이타심에 속한다고 하였다.⁵⁷⁾ 따라서 현사는 단지 ‘의식에 현현된 영상상’이라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심구의식에 현현된 영상상”이라 말한 것이다.

이러한 오심설은 『유가론』에서는 전후에 산발적으로 짧게 설해졌을 뿐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학설이 아니고, 또한 후대의 유식설을 집대성한 『성유식론』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규기의 『의림장(義林章)』 「오심장(五心章)」에서 12문(門)으로 ‘오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⁵⁸⁾ 현사가 이 오심설을 적용하여 본성상·영상상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상의 현사의 해석은, 비록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의 사상적 면모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본성상과 영상상에 대한 해석에서, 현사는 당대(唐代)의 유가론연구의 제1세대의 쟁쟁한 학자들과 견줄 만한 독자적 식견과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경·태·비·현의 해석을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사의 해석은 『성유식론』 등에 기반한 신(新)유식설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여겨진다.

56) 『瑜伽師地論』 권1 「本地分中五識身相應地」(『大正藏』30, p.280a22). “復次由眼識生, 三心可得. 如其次第, 謂①率爾心, ②尋求心, ③決定心. 初是眼識. 二在意識. ③決定心後, ④方有染淨. ⑤此後乃有等流眼識, 善不善轉…….” ①②③④⑤는 그 차례대로 솔이심, 심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류심에 해당한다.

57) 『瑜伽師地論』 권3 「本地分中五識身相應地」(『大正藏』30, p.291b17). “又意識任運散亂, 緣不串習境時, 無欲等生, 爾時意識, 名率爾墮心, 有欲等生尋求等攝故.”

58) 오심설(五心說)은 초기 유식학 논서인 『瑜伽師地論』 제1권, 제3권 등에도 나오긴 하지만, 단지 간단히 이름만 나열하거나, 혹은 ‘의식의 솔이심’에 대한 짧은 진술만 있을 뿐이다. 또 후대 유식설을 집대성한 『成唯識論』에도 이 학설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규기(窺基)의 『大乘法苑義林章』 「五心章」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또 후대의 일본 학자 청범(淸範)이 저술한 『五心義略記』는 『대승법원의림장』의 「五心章」에 대해서 별도로 주석한 것이다.

V. 맺는 말

신라현법사(新羅玄法師)는 20세기 초 일본학계에서 처음으로 조명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유가론기』에 인용된 신라출신의 학승이라는 것 정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본고에서는 가즈마타의 논문(1938)에 나온 현법사에 관한 짧은 진술을 실마리로 삼아서, 판본 대조를 통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검토해보았고, 나아가 현법사의 사상적 면모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현법사에 대한 가즈마타의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오류를 수정·보완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단서들에 의거해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즈마타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玄’의 구명(具名)은 ‘僧玄’이고, 『유가론기』에 총 16회 인용되며, 현장의 문하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대정장』과 『한불전』에 수록된 『유가론기』 및 금릉각경처본 『유가사지론기』 등 3종의 판본을 대조해봄으로써, ‘현’의 인용회수를 총 19회로 수정하였고, ‘玄’과 ‘僧玄’이 현장의 문하에서 활동했던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또 그에게 『오종성의(五種性義)』1권의 저서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가즈마타가 『유가론기』에 인용된 제가(諸家)의 인용 빈도수를 정리한 도표를 분석함으로써, 「섭결택분」의 성문지의 주석에서 현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현사는 총 19회 중 13회 집중적으로 인용된다. 총 인용회수로만 보면 현사의 위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권별(卷別)의 인용 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둔륜이 『유가론기』를 구상할 때 『유가론』 전문의 주석에서 ‘基·景·泰’를 주축으로 삼았고, 그와 동시에 일정한 구간별로 그들의 해석을 수정·보완하는 별도의 학자군으로 ‘備·測·玄·達’을 배치했던 것 같다. 둘째, 현사를 제외한 6인이 모두 『유가론』 관련 주석서를 저술하였고, 또 여기에 인용된 그의 석문들이 본문을 따라 주석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사도 『유가론』 주석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현사의 것은 태사의 것보다 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섭결택분」의 보살지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된 景·泰·備·玄 4인의 해석을 비교해봄으로써 현사의 사상적 면모를 추정해보았다. 특히 본성상(本性相)과 영상상(影像相)에 대한 주석을 통해, 현사가 당대의 유가론연구의 제일류 학자들과 견줄만한 독자적 식견과 논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역 경론에 의해 확립된 유식설에도 상당히 정통한 학자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彌勒, 『瑜伽師地論』, 『大正藏』 30.
- 護法等, 『成唯識論』, 『大正藏』 31.
- 道倫, 『瑜伽論記』, 『大正藏』 42.
- ____, 『瑜伽論記』, 『韓國佛教全書』 제13-14冊(『宋藏遺珍』 수록본).
- 窺基, 『瑜伽師地論略纂』, 『大正藏』 43.
- ____, 『成唯識論術記』, 『大正藏』 43.
- ____, 『大乘法苑義林章』, 『大正藏』 45.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大正藏』 55.
- 永超, 『東域傳燈目錄』, 『大正藏』 55.
- 金陵刻經處, 『瑜伽師地論記』 下, 中華民國 65年(1976).
- 勝又俊教 譯, 『瑜伽論記』, 『國譯一切經』 論蔬部 十二.

2. 단행본 및 논문류

- 結城令聞, 「瑜伽論記の著者名に對する疑義」, 『宗教研究』 新第8卷第5號, 1931.
- 江田俊雄, 「新羅の通倫と「倫記」所引の唐代諸家」, 『宗教研究』 新第三號, 昭和9年.
- 勝又俊教, 「瑜伽論記に関する二三の問題」, 『佛教研究』 第2卷 第4號, 1938年.
- 常盤大定, 『佛性の研究』, 國書刊行會, 1973年 再刊.
- 楊白衣, 「道倫『瑜伽師地論記』之研究」, 『華岡佛學學報』, vol.7, 1984.
- 『韓國佛教撰述文獻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박인석,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思想史學』 第50輯, 2015.
- ____,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혜경(惠景)의 사상경향 분석-「五識身相應地」와 「意地」의 주석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39호, 2014.
- ____, 「道倫의 唯識 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 『철학사상』 제45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 이만, 「道倫의 瑜伽師地論記에 관한 資料的인 性格과 그 唯識思想」, 『신라문화제학술 발표회논문집』, 1993.
- 최종남, 「『瑜伽論記』가 수록된 판본 대조 연구」, 『密教學報』 vol.6, 2004.

A Study of the Scholar Hyeon 玄 from Silla as Shown in the *Yugaron-gi* (瑜伽論記)

Back, Jin-Soon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scholar-monk Hyeon (玄) from Silla (新羅) who appeared in *Yugaron-gi*.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the full name of ‘Hyeon’ was ‘Seunghyeon 僧玄,’ and he is quoted a total of 16 times in this book. Presumably, he was a person studying under Hyeonjang (玄奘)’s instruction. In this paper, by comparing 3 manuscripts I have corrected that the number of quoting ‘Hyeon’ in this book was a total of 19 times, and provided a detailed evidence for presuming ‘Hyeon’ as ‘Seunghyeon’, the same person who practiced under Hyeonjang’s instruction. In addition, I verified that he had one published book called *The Meaning of Five Spiritual Faculties* (五種性義).

Furthermore, I have presented two new hypotheses by analyzing the method of quoting seven scholars of Mind-Only (唯識) school in *Yugaron-gi*. First, in the comments of the *Yugaron* (瑜伽論) (Skt. Yogācārabhūmi-sāstra), I have analyzed them based on ‘Gi (基), Gyeong (景) and Tae (泰).’ And at the same time, I have found that it seemed to arrange ‘Bi (備), Cheuk (測), Hyeon and Dal (達)’ as an additional group of scholars who corrected and compensated the interpretations of those three people in each sector.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yeon’ had a commentary of *Yugaron-gi*, and in that case, it is presumed that Hyeon’s commentary was written later than that of Tae.

Lastly, by analyzing the commentaries of four people, including Gyeong, Tae, Bi and Hyeon, about ‘the feature of the thing itself 本性相’, and ‘the feature of the

reflected image 影像相’, I presumed that Hyeon had his own knowledge which was comparable with the top-class scholars of the Tang era, and he was a scholar a lot familiar with the new theory of Mind-Only.

Keywords

Yugaron-gi 瑜伽論記, the scholar-monk ‘Hyeon 玄’, Gyeong 景, Tae 泰, Bi 備, the feature of the thing itself 本性相, the feature of the reflected image 影像相

2017년 08월 09일 투고

2017년 09월 08일 심사완료

2017년 09월 09일 게재확정